

《죽음을 미제침략자들에게》, 이 노래 다시 들으며

공화국에는 반미주제의 노래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반미가요, 창작되어 반세기 이상이 흘렀지만 인민들속에서 미제에 대한 증오로 심장을 불태우며 변함없이 불리워지는 노래가 다름아닌 《죽음을 미제침략자들에게》이다.

동무들아 언제든지 경각성 높이자
우리의 눈앞엔 미제가 있다
피에 주린 승냥이 미제침략자
전쟁을 찾아대며 발광을 한다
미제는 우리의 철천지원수
대대손손 골수에 사무친 원수
증오와 분노의 피가 끓는다

소탕하자 박멸하자 죽음을 주자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타고앉아 퍼비린내나는 침략의력사를 이어가며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침략자 미국에 대한 증오와 복수의 감정을 더친 노래 《죽음을 미제침략자들에게》!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원수 미제에 대한 불라는 증오와 적개심으로 심장이 뛴다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미국은 침략과 살육을 기질로 하는 피에 주린 승냥이이고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이며 대를 이어오며 뼈에 사무친 백년속적이다.
미국은 백수십년전부터

조선땅에 침략의 마수를 뻗쳐왔고 오늘날에도 침략의아망을 버리지 않고 날뛰는 파렴치한 침략의 나라이다.

삼천리강토를 둘로 갈라놓고 조선민족에게 분렬의 고통을 들씌운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며 이 땅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을 강요한 주범도 바로 미국이다.

은 거레가 나라의 통일을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설 때마다 통일을 바라는 거레의 마음에 칼질을 해대며 궤방을 놓은것도 다름아닌 미국이었다.

아직도 날강도 미국은 저들의 침략책동적을 실현해보려고 수많은 핵무기들을 남

조선에 끌어들이 해마다 핵전쟁연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여놓고있다.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미국의 침략책동으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증오의 피는 끓어번졌고 미제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주자는 노래는 분노의 웨침이 되어 울려 퍼졌다.

일터에서 초소에서 이 노래를 처음 불렀던 20대의 꽃나이청춘들이 이제는 머리에 흰서리를 엮었지만 노래는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불리워지며 미제침략자들의 가슴팍에 서리발치는 분노의 총검을 박고있다.

세월과 함께 오진지의 소리로표들은 색이 바랄수 있어도 제국주의 미국에 대한 공화국인민들의 증오의 감정은 변할수도 바랄수도 없는 것이다.

지금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며 쌓이고쌓인 미국에 대한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증오와 멸적의 감정은 폭발적전에 이르렀다.

...
증오와 분노의 피가 끓는다
소탕하자 박멸하자 죽음을 주자

미국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계속되는 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노래 《죽음을 미제침략자들에게》를 더욱 높이 부르며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해갈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순



미국에 대한 증오심이 활활 타고른다.

미국은 북남관계개선의 암초 (2)

광란적인 반공화국핵소동에 매달려

1990년대에 들어와 공화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노력과 은 거레의 거족적인 통일애국운동에 의하여 북과 남사이에는 전민족적대화의 장이 열리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결성된데 이어 북남고위급회담이 개최되는 등 조국통일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어갔다.

그런데 미국은 반공화국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정계로 몰아갔다.

이미 1980년대 북남사이에서 적십자회담이 진행되고 큰물파를 일으킨 남조선인민들에게 공화국의 지성어린 구조물자가 전달되었으며 애슬던, 교향방문단이나 서로 레광하면서 화해의 분위기가 조

성되었을 때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핵운동이를 내취드르며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일촉강화하는것으로 그에 빗장을 질렀던 미국이다.

1990년대초 미국은 그 누구의 《핵개발》이니 뭐니하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까지 발동하여 공화국에 대한 경제사동으로 광분하였다.

특히 군사대상물들에 대한 《투발사찰》을 강요하면서 공화국의 자취권과 최고리익을 엄중히 위협해나갔다.

미국은 도발적인 유엔《제재결의》로 공화국을 압박하였을뿐아니라 핵을 로골적으로 휘두르며 우리 민족을 위협공갈하였다.

미국은 핵잠수함 《센트렌세스코》호와 이지스순양함《사일로우》호를 비롯한 최신핵전쟁수단을 남조선에 긴

급 과전하여 우리 민족에게 핵협박을 가하였다. 《핵위협》을 운운하며 120만의 제국주의연합군과 태평양에 있는 방대한 핵무력을 조선반도주변에 긴급출동시키고 대조선외위환을 겹겹으로 형성한 미국은 중지했던 《팀 스퍼리트》합동군사연습도 재개해나갔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공화국에 준전시상태가 신도되고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의 문이구까지 달달았다.

미국은 땡전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군사연습의 규모를 줄이면서도 조선반도에서는 땡전시기와 다름없이 해마다 북침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놓으며 전쟁열을 끊임없이 고취하였다.

1994년초 공화국의 평화적 핵시설들에 대한 기습적인

《외과수술식타격》을 준비하면서 미국은 캐롤라이나주세이머 존슨기지에 있는 제4전투비행단소속 《F-15E》전투폭격기들을 출동시켜 공화국에 대한 핵폭격훈련까지 감행하였다. 미국이 세겜은 1990년대의 《신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7-98》을 비롯한 모든 작전계획들은 철저히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여 작성되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반입과 배비는 부단히 증대되어 그 수가 1990년대에는 1 720여기에 달하였으며 배비밀도에서 세계최대로 되었다. 남조선에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로 만든 미국은 땡벤스럽게도 저들의 핵무기반입을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NCND정책》을 내

놓고 우리 민족과 세계여론을 우롱하였다. 1999년 1월 남조선에 기여든 미국방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남조선군부호전군사들과 제30차 《년례안보협의회》를 벌여놓고 《유사시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화국을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댔다.

무장간첩선과 정찰기들을 떼없이 공화국의 평해와 평공깊이 들이밀고 전연해상과 공중, 지상에서 계획적인 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며 북남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조선반도에 전쟁도, 평화도 아닌 항시적인 긴장상태를 지속시켜오고있는것이 다름아닌 미국이다.

력사와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우리 나라를 둘로 갈라놓고 남조선을 타고앉아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재난을 들씌우고 있는 분렬의 원흉, 북남관계개선의 암초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최광혁

지난 3월초부터 막을 올린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최대로 격화시키면서 일촉즉발의 핵전쟁위험을 조성시키고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포항에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일환으로 벌여놓은 《쌍룡》연합상륙훈련을 두고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3월 27일에 시작되어 무려 12일동안이나 진행되는 연합상륙훈련은 전형적인 공격훈련이다.

이 불장난에는 오키나와주둔 미3해병원정려단과 남조선해병대 등 1만 2 500여명의 침략부력과 직속기강습상륙함, 구축함 등 군함 7척과 《CH-53S》수송직송기, 《C-130》수송기, 고속기동용 수직리착륙수송기 등 최신공격장비들이 대대적으로 투입되었다.

한동안 《독수리》훈련이 공화국을 《자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수위조절》이요 위요 하면서 그에 대한 언론공개를 삼가하던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이번

는 저들의 광기어린 불장난소동들을 언론을 통해 적극 공개하면서 북침전쟁열을 올리고있다.

호전광들은 공화국북반부 해안지대로의 상륙을 위한 교두보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상륙작전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륙돌격장갑차, 공기방사정 등에 의한 상륙훈련을 맹렬히 벌리었다.

또한 《CH-53S》직송기

평화를 해치는 불장난소동

와 《C-130》수송기들이 후방침투입무를 맡은 병력과 물자들을 대대적으로 실어나르고 남조선군 수송함선들은 평크와 각종 군용차량, 병력들을 해안선에 부리우며 실전을 방불케 하는 소동을 벌리었다.

특히 주목을 끈것은 남조선에 날아든 미해병대의 수직리착륙기《MV-22오스레이》 22대가 훈련장상공을 돌아치며 북침화약내를 질게 쏘고진다.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그 무슨 《년례적》이

고 《방어적》이라는 파렴치한 주장을 내들었다.

하지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일환으로 벌어진 이번 연합상륙훈련의 규모와 목적만 보아도 그것이 한갓 기만적인 선전에 불과하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이번 연합상륙훈련에 참가하고있는 미해병대 제3해병원정려단은 이라크전쟁에 참가하여 실전능력을 쌓고 공

군사적으로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무장충돌을 야기시켜 북침전쟁을 일으키는것, 이것이 최대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을 벌려놓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긴장상태를 격화시켜놓고 종당에는 침략전쟁으로 이어가자는것이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추구하는 음흉한 속심이다.

사실들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진짜도발자는 바로 미국이라는것을 날날이 고발하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군사상식으로 보아도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은 상

대방에 대한 로골적인 위협이며 공공연한 전쟁도발책동이다.

하다면 무엇때문에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대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을 벌려놓고 그것을 요란히 공개하며 긴장상태를 부채질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원래 군사적도발로 상대방을 자극하여 맞대응으로 번저지면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식으로 침략의 불을 지르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수법이다.

군사적위협과 공갈수동으로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무장충돌을 야기시켜 북침전쟁을 일으키는것, 이것이 최대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을 벌려놓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긴장상태를 격화시켜놓고 종당에는 침략전쟁으로 이어가자는것이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추구하는 음흉한 속심이다.

사실들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진짜도발자는 바로 미국이라는것을 날날이 고발하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영국에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침략전쟁연습을 규탄하는 시위 진행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항의하는 시위가 3월 27일 영국주재 미국대사관앞에서 진행되었다.

시위에는 영국신공산당, 선군정치연구협회, 주재사상연구소,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미군은 남조선에서 물러가라》,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미제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라고 쓴 프랑카드들을 들고있었다.

그들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지난해 조선반도에서 로골적으로 군사적긴장을 고조시켜 정세를 전쟁정계로 몰아간데 이어 올해 2월말부터 또다시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아 불안정을 지속시키고있는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을 《년례적》이니 뭐니 하지만 군사연습에 동원된 장비와 인원으로 보아 주체사상에 기초한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화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침략전쟁연습이라고 까밝혔다.

또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인권》소동을 조선에 고립압살하기 위한 책동으로

단죄하였다.

시위자들은 공화국기를 휘날리고 반미구호들을 웨치면서 미국이 침략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며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각종 제재를 철회하고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폭로하는 선전물들을 보행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본사기자

침략적인 상륙훈련에 항의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3월 31일 남조선의 《전쟁반대 평화선원 국민행동》 성원들이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침략적인 《쌍룡》훈련을 규탄하여 경성북도 포함일대에서 항의시위투쟁을 진

개하였다. 시위자들은 대규모상륙훈련은 그 누구의 공격을 격퇴하는 《방어훈련》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요거점 점령을 위한 공격훈련이라고 단죄하였다.

남북대화의 장을 열고 평

화체제구축을 위한 평화협상을 해야 할 때에 군사적대행동이 강행되는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시위자들은 호전광들이 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침략적인 전쟁연습소동의 중지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그날은 청명한 날이었다. 파랗게 개인 하늘엔 봄날의 희부연 안개마냥 흰구름 몇송이만이 가벼이 굴실거리고 있을뿐이었다.

아직은 불에 닿는 바람이 사늘했고 산과 들에 새싹이 내불리기에에는 때 이른 무렵이었다.

하긴만 사람들은 싱싱한 하늘의 다함없는 청신함에 눈을 부비며 나나없이 봄의 전조를 느끼고있었다. 립춘이 하루 지난 때여서였을가.

하긴 립춘이라면 우리 거레의 마음속에 봄이 찾아드는 절기이다. 해마다 이날이 오면 우리의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은 집안팎을 개곳이 손질하고 새해의 소원과 새봄을 축복하는 립춘글을 써서 대문이나 기둥에 붙여놓지 않는다.

허나 그날 사람들의 가슴가슴이 봄의 훈향을 머금고 류달리 설레인것은 다만 대물림하며 전해온 조상의 유

습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불신과 대결로 일어불었던 삼천리강토우에 혼돈하게 울려퍼진 화해와 단합의 서곡때문이었으리라.

올해의 첫 아침 내외에 천명신전 절세의 애국자의 뜨거운 호소에 이끌려, 조국통일과 평화변명을 열망하는 7천만의 절절한 녀민에 떠받들려 마침내 그날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위한 북남적십자실무접촉이 판문점에서 열렸던것이다.

최소시이었다. 거레의 가슴속에 봄의 훈기를 안겨준 희망의 서곡이었다. 어디를 보나 웃음과 화기가 떠돌았다. 단지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에만 머무를것이지 아니라 외세와 약한하여 동족을 해치려는 핵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대북제제》늘음을 걷어치우야 한다는 격양된 목소리들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화해》와 《단합》, 《통일》이라는 단어를 립



《B-52》핵 전략폭격기

봄 하늘에서 울려온 폭음

춘글인양 마음속에 새불이며 온 강토가 환희에 휩여넌 지던 6.15의 그날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고있었다. 바야흐로 이 땅우에 거창한 언두빛과도로 도레할 민족단합의 새봄을 가슴부풀도록 꿈꾸어보고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인가. 봄의 서기가 떠돌던 조선반도의 하늘을 뚫돌며 난데없이 스산한 폭음이 메아리쳐왔으니 말이다. 미국의 《B-52》핵전략폭격기편대들이 북을 겨냥한 핵타격연습을 하기 위해 조선서해 직도상공에 날아들었다는것이 아닌가.

은 거레가 경악했다. 봄별이 비껴드는듯싶던 조선반도는 갑자기 들이닥친 긴장과 불안으로 하여 다시금 한겨울로 되돌아가버리고말았다.

《B-52》폭격기라는게 과연 어떤것인가. 대북간탄도미싸일, 핵잠수함과 함께 미국이 《3대핵전력》이라고 떠들어대는 전략핵무기가 아닌가. 지난해 조고선반도의 전쟁위기를 극도로 고조시켰던 가증스러운 주범이 아닌가.

그렇듯 흉악한 대량살육무기를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이 지속되던 이 땅우에 모처럼 화해의 분위기가 깃들기 시작하던 무렵에, 그것도

북과 남의 대표들이 판문점에 모여앉아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과 관련한 합의를 이룩해나갔던 그 시각에 수천km의 태평양을 넘어 우리 거레의 머리우에 날려보내다.

실로 억이 질리고 분통이 치밀어오르는 일이었다. 그날 《B-52》의 폭음은 흡사 피에 주린 야수의 울부짖음마냥 삼천리강토우에 살벌하게 뒤울려갔다. 미국이 핵전략폭격기들을 밀어붙여 핵타격연습까지 했다는 소식을 듣고 공화국사람들은 두세기전 대동강에 기여들었던 《서민》호의 검은 흙재를 떠올렸고 지난 전쟁시기 이 땅의 도시와 마을들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하던 미제공공비적들의 살기어린 평음을 상기했다.

비단 북녘뿐이었으랴. 남녘의 림심도 《해도해도 너무 한다》, 《하필 리산가 죽상봉회담날 핵폭격기 띄웠나?》, 《미국, 뭉니를 부러는것인가?》, 《하를로부터 날아오는 전쟁의 불씨 《B-52》 투입 중단하라!》고 웨치며 울분의 함성을 높였다.

하긴만 미국의 오만무도한 행보는 멈춰설줄 몰랐다. 공화국의 통 큰 용단에 의해 마침내 북과 남사이에서 화해의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하자 미국주장관 케리는 작심하

고있었던듯 공화국을 《악》이라고 혈뜰으며 또다시 이 땅우에 긴장과 대결의 찬바람을 불어왔다. 어디 그뿐인가. 미행정부의 고위외교당국자들이 뽀들쭉에 불이 일게 기여들어 《핵문제를 떠난 관계개선은 있을수 없다》. 느니, 《대북접근은 《한》미관계를 시험할수도 있는 음적일》이라느니 하고 피대를 돈구어대며 남쪽당국을 압박하고있다니 참으로 조상들의 표현을 빌려 말한다면 제 못 먹을 밥에 재를 뿌리는 비렬한것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무엇때문에 미국은 이 땅에 화해의 봄이 오는것을 그처럼 도마뎡해하는것일까. 우리 거레가 화해라고 단합하는것은 미국이 넘볼처럼 위위오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그다지도 모순되는 수화상국이란 말인가.

불현듯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쓰러린 상처로 새겨져있는 《타프트-가즈라협정》에 얽힌 비화가 떠오른다.

1905년 7월 29일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의 특사였던 미국군장관 윌리엄 타프트와 일본수상 가즈라 다로사이에 벌어진 도쿄비밀회담에서 로씨야세력을 밀어냄으로써 장차 동북아시아를 제패하기 위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할 목적으로 일제의 조선의 식민지통치를 인정하는 대가로 미국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보호통치》를 인정

약을 헌신짝처럼 차버린것이다.

그런줄도 모르고 로일전쟁에서의 일본의 거듭되는 승전앞에 초조해하던 조선봉건정부는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의 중재로 포츠머스에서 로 일간에 강화회담이 진행되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구세주를 만난것처럼 환성을 울리며 미국에 밀사를 파견한다.

루즈벨트의 큰말을 초청하여 환대를 베푼다 하며 한바탕 분주당을 피웠더니 실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미국이아는 나라의 위선적인 정체를 간파하기에는 너무도 무력하고 어질어빠졌던 조선봉건정부로서는 포츠머스회담의 중재자인 미국대통령이 《조미조약》에서 약속한바대로 조선의 독립을 보전하기 위해 적극 힘써주리라 기대해마지 않았을것이다.

만일 그때 고종황제가 타프트와 가즈라사이에 벌어진 모의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루즈벨트가 이미전에 《미국은 조선정부를 위해 일본에 대항할수는 없다》고 언명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심경이 어땠을가.

그로부터 몇달후 일제에 의해 《울사5조약》이 날조되기 바쁘게 미국은 조선에서 세일민족 자국의 공판을 철수하였다. 일본의 조선강점을 맨 실명으로 인정하고 조선과 외교관계에 단절된 최초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는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진면모를 적라라하

게 보여주는 실례라 해야 할것이다.

《력사는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고 어느 현자는 말했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미국의 행동기준은 자국의 리해판계이다.

어제날 미국이 약소국을 배신하고 우리 겨레를 일본에 제물로 내민것건것도, 그리고 오늘날도 미국이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에 함부로 끼어들면서 동족의 화해와 단합을 한사코 가로막아나고 있는것도 다름아닌 세계제패라는 저들의 탐욕스러운 국익때문이었었다.

그렇다, 미국의 국익앞에 세계는 없다.

미국의 국익앞에 이 땅의 평화와 통일도 없다.

그네들의 괴물은 국익앞에서 우리 겨레의 운명은 한갓 흥정거리요, 손끝에서 켜져난 주산알에 불과할 따름이라는것을 지나간 력사는 생생히 고발하고있다.

하저를 아직까지도 력사의 엄혹한 교훈을 깨닫지 못한한제 《자유》와 《평등》, 《세계평화》와 《인권》을 떠드는 미국의 위선과 기만에 현혹되어 살아간다면 과연 100여년전의 비운의 주인공들과 다를바가 무엇이라.

봄하늘에서 뒤울러온 그날의 폭음을 생각하느라 우리 인민구끼리에는 여섯자의 글귀가 천근만근의 무게로 가슴속에 새겨져온다.

장수봉